

수행과 정진을 통한 깨달음

- 경자(庚子)년 삼동산림(동안거-화엄법회) 결제 -



지난 11월 24일(음력 10월 10일) 봉원사 설법전에서는 경자년 삼동산림 기도 입재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되었다. 오전 10시 봉원사 시련에서 시작된 법회는 봉원사의 대중 스님들과 다수의 신도들이 참가하였다.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봉원사에서는 실내 방역작업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봉원사 등 태고종 일부 사찰에서만 진행되어온 삼동산림은 동안거를 달리 일컫는 말이다. 올해는 11월 24일(음력 10월 10일)부터 내년 2021년 1월 20일(음력 12월 8일)까지 약 두 달 간 진행된다.

삼동산림이란 삼동(三冬)의 추운 겨울 절의 문밖을 나서지 않고 대중 스님들이 도업(道業)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보통 다른 절에서는 동안거라 지칭하지만 봉원사의 삼동산림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자체적인 동안거 의식으로, 스님들과 신도들이 새벽 법회를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다른 절의 의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동안거 기간 동안 산사에서는 겨울에 스님들의 외출을 금하고 좌선하며 수행하고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하며 생명의 고귀함과 인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스님들은 일반 신도들과 다르게 엄격한 계율을 지키며 스스로의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기도 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신도들은 부처님과 선근인연을 맺고 소원성취하기 위하여 매일 새벽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정진하며 화엄법회를 봉행하게 된다.

삼동산림 기도는 매일 새벽 4시 도량석을 시작으로 쇠송, 타종(33번)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법전에서 예불과 기도, 공양이 두 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다. 그리고 특별법문도 정기적으로 마련된다. 봉원사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부대중이 같은 시간에 빠짐없이 한자리에 모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다. 봉원사에서 이렇게 모든 사부대중이 같은 시각에 동안거라 불리는 봉원사식 삼동산림 기도는 이제 봉원사의 전통이 되었다.

경자(庚子)년 동지불공 안내문

귀의 삼보하옵고 금년에도 봉원사에서는 동지불공을 모십니다.

중국의 주(周)나라는 동지를 설로 삼았고, 동짓날에 천지신과 조상의 영을 제사하고 신하의 조하(朝賀 : 뜻깊은 날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하는 의식)를 받았으며 '동국세시기'에서는 아세(亞歲)라 하여 '작은 설'로 불렀습니다. 이는 동지가 태양의 부활을 뜻하는 큰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가에서는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해를 참회하면서 소원을 빌어 복을 구하는 것이며 부처님과 함께하겠다는 발원의 의미를 지녔으며, 부처님께 팔죽공양을 올리며 모든 악귀를 몰아내는 원화소복(遠禍召福)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신도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한해의 묵은 때를 말끔하게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 날 짜 : 2020년 12월 21일(음력 11월 7일) 월요일
- 장 소 : 봉원사 설법전
- 시 간 : 오전 10시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한 해의 묶은 때를 씻어내고 지난해를 참회하며

- 경자(庚子)년 동지불공(冬至佛供) -



2020년 12월 21일은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 날이다. 동지는 이름처럼 겨울(冬)이 극에 달한(至) 시기로, 이날을 기점을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해 양(陽)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다.

옛 사람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경사스럽게 여겨 명절로 삼았다. 이것은 동지를 신년으로 생각하는 고대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전통사회에서는 흔히 동지를 '작은 설'이라 하여 설 다음 가는 경사스러운 날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옛말에 '동지를 지나야 한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팔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이 전하기도 한다. 팔은 색이 붉어 양색(陽色)이므로 음귀(陰鬼)를 쫓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으며 민속적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우물에 팔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하며 사람이 죽으면 팔죽을 쑤어 상가에 보내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는 상가에서 악귀를 쫓기 위한 것이다. 동짓날에 팔죽을 쑤어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문 근처의 벽에 뿌리는 것 역시 악귀를 쫓는 축귀 주술행위의 일종이다.

동지는 전통적인 명절이지 불교적인 명절은 아니다. 후세 사람들이 만들었기에 불교적이나 아니냐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특별한 민속이나 전통을 잘 수용한다는 불교의 장점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세상에는 불변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도 없거니와 또한 무의미한 일도 없다'는 말씀처럼 신도와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면 될 일이다.

올해도 봉원사에서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12월 21일(음력 11월 7일) 월요일에 동지불공을 드릴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 일년 내내 불공을 드리는 사찰 입장에서의 동지불공은 특별한 불공은 아니다. 하지만 신도들로 하여금 부처님께

발원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을 뜨게 하려는, 스님들의 작지만 큰 배려에서 행해지는 의미가 큰 불공이다.

시주접수처 안내



봉원사 도량 내에 새로운 기와불사 및 시주접수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주(施主)란 글자 그대로 '보시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도님들은 새로운 시주접수처에서 시주공덕을 쌓으시어 시련이 사라지고 더 많은 이익과 결실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12시, 오후 1시 - 3시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수처 시간을 위와 같이 조정, 운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경자년 삼동산림(동안거) 기도 동참 안내문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년과 같이 사부대중이 모두 모여 용맹정진에 들어가는 동안거 입재 기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많은 불자들께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부처님과 선근인연을 맺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 동안거 입재일 : 2020년 11월 24일(음력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00시
- 동안거 회향일 : 2021년 1월 20일(음력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00시
- 기도장소 : 설법전
- 기도시간 : 매일 오전 06:00시
- 동 참 금 : 기도 불공비 공양미 1가구 한 가마, 반 가마
- 영가1위 : 30,000원
- 접 수 처 : 각 화주 스님 및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봉원사 경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염원

- 제32회 영산재 봉행 -



(사)국가무형문화재 영산재보존회와 봉원사는 지난 11월 26일(음력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봉원사 영산재 보존 도량에서 '제32회 영산재 시연'을 여법하게 봉행하였다. 이번 영산재 시연회는 현충일(양력 6월 6일)에 거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되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봉원사에서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한 염원을 담아 11월이 다 가기 전에 영산재 시연회를 봉행하게 되었다.

오전 10시에 시연 의식을 시작으로 펼쳐진 영산재 정기시연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 조짐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신도와 불자들이 함께하지 못한 상태로 스님들만 모신 가운데 치러졌으며, 오후 2시경에 원만히 회향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구병사식이 봉원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대방에서 처음 봉행되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참석지 못한 영산재였으나 시연회에 임한 스님들과 회원들은 시종일관 열과 성을 다해 영산재 시연회 의식을 봉행하였다. 스님들의 범패 소리와 작법 등 춤사위는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장엄했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에서 행한 설법인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오늘에 재현한 불교의식이다.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부처의 참 진리를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의식이 담겨 있다. 아울러 불교 음악인 범패(梵唄)에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 무용적 요소와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그린 괘불(掛佛), 감로탱화 등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불교종합예술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다.

불교예술의 숨결이 살아 있는 영산재는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됐으며,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이며 영산재의 하이라이트 격인 '식당작법' 순서에서는 모두가 숙연해지며 엄숙하고 장엄한 의식이 치러졌다.

식당작법이란 총림의 스님들이 대법회시 재당 등의 장소에서 설판재자(設辦齋者)*가 준비한 공양을 받고 스님들은 그 보답으로 범공양을 베풀게 되는 의식이며, 부처님께 올린 음식을 중생들과 나누어 먹고 부처님의 은덕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작법이라는 말이 붙은 만큼 일반 공양과는 달리 의식의 한 순서에 해당되어 절차가 매우 방대하고 장엄하다.

시연회를 마친 후 주지 운봉 스님은 "원래 6월 6일 현충일에 거행될 예정이었던 영산재를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하였는데, 11월이 다 가기 전에 거행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무척 추워 실외에서 시연회를 모실 수 있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봄같이 따뜻한 날씨에 의식 스님들께서 예상보다 수월하게 시연회를 모시게 되어 염려를 놓았다."고 하셨다. 아울러 해마다 영산재를 모실 때에는 수천 명의 신도님들과 불자님들과 함께 장엄스럽고 화려한 영산재에 동참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스님들만 모신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내년에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처럼 많은분들을 모신 가운데 영산재를 봉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어장구해 스님과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용상방을 기획해 주신 일운 스님, 영산재 전수교육구교 경암 스님과 회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질서있게 영산재가 회향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음회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맺었다.

*설판재자(設辦齋者) : 불사나 법회를 베풀기 위해 노력과 비용을 담당하여 애쓰는 사람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건 ●

봉원사는 순수 기부금에 한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사보 후원금 ●

이 승 환 1만 원(인공 스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청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 구석구석 깨끗한 손씻기를 실천해요!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1 손바닥**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 2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 3 손가락 사이**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주세요
- 4 두 손 모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 5 엄지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 6 손톱 밑**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봉원사 시왕도 및 사자·장군도(奉元寺十王圖 및 使者·將軍圖)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76호 지정 —



제5염라대왕도 일부

안에 왕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이 왕의 심판을 돕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림상으로는 각 왕의 이름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같은 구성 형식인 화계사와 흥천사의 시왕도의 지옥장면을 비교하면 각 왕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1·3 대왕도 : 망자가 죽은 후 7일 되는 날 첫 번째로 벌을 내리는 진광대왕의 심판광경과 확장 지옥에서 망자가 고통받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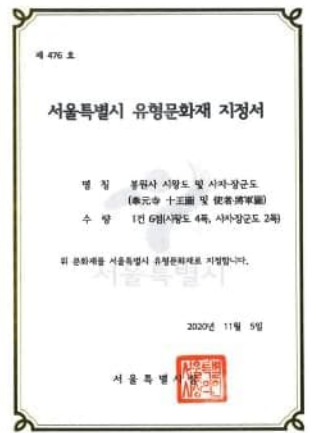
2·4 대왕도 : 14일째 되는 날 심판을 내리는 초강대왕의 심판장면과 농설지옥 묘사

5·7·9 대왕도 : 제5대왕도는 염라대왕의 심판장면과 업경대, 제7대왕도는 49일째 심판을 받는 태산대왕의 심판장면과 한빙지옥, 제9대왕도는 사후 1년째에 망자를 심판하는 도시대왕과 거해지옥, 업칭지옥 장면

6·8·10 대왕도 : 왼쪽부터 제6번성대왕과 검수지옥, 사후 100일째 되는 날 공평하게 심판하는 제8평등대왕과 죄인의 압사장면, 마지막 맨 오른쪽은 죽은 후 3년이 지난 심판을 받고 다시 태어날 곳을 결정하는 제10오도전륜대왕, 그리고 하단에는 육도(삼산도, 삼악도)가 그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시왕도 4폭 외에 봉원사 시왕도를 구성하는 불화로는 사자·장군도 2폭이 있다. 이 그림에는 지옥사자와 장군(인왕)이 한 폭에 그려져 있다. 명부전이나 시왕전의 봉안 위치상 죄·우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다. 사자도는 명부의 전령이 지옥사자 2명이 말을 끌고가는 그림이다. 인물들은 그들의 엄중한 역할과는 달리 해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장군은 사자도 바깥쪽에 그려지며 수로를 맡은 역할답게 무장신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갑옷과 장신구에 금을 사용하였다.

봉원사의 시왕도와 사자·장군도는 인물표현 등에서 구체적이고 섬세한 필선과 더불어 병풍의 장식적인 요소가 추가 되어 있다. 또한 각 기물의 세부 묘사가 정교하다. 금을 사용한 채색은 매우 차분한 느낌을 준다. 이 불화들은 19세기 한성부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십왕도의 도상과 유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불화로 큰 의미가 있기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문화재이다.



제476호

봉원사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한 문화재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서울시 유형문화재 6점과 문화재자료 2점이 지정되었다. 현재는 봉원사의 문화재 2점과 문화재자료 3점이 추가로 지정 고시된 상태이다. 이번 호에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76호로 지정된 시왕도 및 사자·장군도(奉元寺十王圖 및 使者·將軍圖)를 소개한다.

현재 봉원사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왕도 및 사자·장군도는 비단 바탕에 그려진 채색 불화로 모두 6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왕 또는 세 왕이 한 폭에 그려진 형식을 띠고 있는데, 제1·3 대왕도 1폭, 2·4 대왕도 1폭, 5·7·9 대왕도 1폭, 6·8·10 대왕도 1폭으로 총 4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더해 사자·장군도 2폭이 추가되어 모두 6폭의 형식을 띠고 있다.

시왕도는 시왕이 주재하는 장면을 상단에, 지옥 장면을 하단에 배치하였고 왕의 뒤쪽으로 병풍을 배경으로 두르고 내부 공간임을 설정하였다. 시왕의 주변으로는 관관, 녹사, 사자, 옥졸 등 명부세계의 인물들이 왕의 심판을 돕는다. 계단 위에는 관관, 옥졸, 동자 등의 권속이 배치되었으며, 단 아래로는 각종 무기를 든 옥졸과 장군, 망자(亡者)들이 묘사되어 있다. 시왕은 화면의 중심으로 인물 중 크게 그려 공간을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물들은 작고 많은 인원을 그려 시왕을 돕는 인물로 묘사하였다. 하단에는 각 왕에 해당하는 지옥 장면을 그려 넣었다. 각 시왕도는 시왕형

시왕도(十王圖)



제1진광대왕도



제2초강대왕도



제3송제대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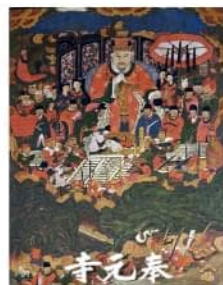
제4오관대왕도



제5염라대왕도



제6번성대왕



제7태산대왕도



제8평등대왕



제9도시대왕도



제10오도전륜대왕도

사자장군도(使者·將軍圖)



579 대왕도 옆 사자·장군도



6810대왕도 옆 사자·장군도



부처/님/전/생/이/야/기

본생경(자타카) 70

자타카(Jataka)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알려졌고, 그 후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동서양으로 이어져 「이솝우화」와 「아라비안나이트」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판소리 「별주부전」으로 발전한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설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도를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은 1세기부터 6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67년 축법란이란 분에서부터 285년 축법호라는 분의 생경(生經) 번역까지 5차례에 걸쳐 700여 편의 본생 설화가 한역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본생경(本生經), 일본에서는 본생담(本生譚), 중국에서는 본생주(本生注)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사자 가족의 전생 이야기

보살이 어느 농가에서 태어나 자라서 농부가 되었을 때였다. 어떤 한 상인이 나귀에 상품을 가득 싣고 다니다가 보살이 사는 마을에 들렀다. 그는 가는 곳마다 나귀에게 사자 가족을 씌워 논이나 밭에 두었다. 농부들은 그 나귀가 사자인 줄 알고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마을 입구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상인은 그날도 나귀를 사자 가족으로 씌워 보리밭에 놓아두고 아침 식사를 기다렸다. 보살 마을의 농부들도 역시 나귀를 사자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마을에 나타난 사자를 쫓으려고 고동을 불고 북을 치면서 모두 무기를 들고 나왔다.

죽을까봐 겁이 난 나귀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나귀 소리를 내며 울고 말았다. 보살은 그것이 나귀임을 알고 다음 계승을 읊었다.

저것은 사자의 울음소리가 아니다
호랑이나 표범의 소리도 아니다

사자 가족으로 둘러 씌워진
비천한 나귀의 우는 소리다.

마을 사람들도 그것이 나귀임을 당장 알아차렸다. 마을 사람들은 나귀의 사자 가족을 벗기고 뼈가 부서질 정도로 때렸다. 그때 맞아 죽어가는 나귀를 보고 상인은 다음과 같은 계승을 읊었다.

오랫동안 이 나귀는
싱싱한 보리를 먹을 수 있었는데
사자 가족을 둘러쓰고는
나귀 울음을 울다가 죽게 되었네.

이렇게 계승을 읊는 동안 나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상인은 나귀를 버리고 다른 마을로 떠났다.

이달의 시

그대 12월에 오시려거든

오광수

그대 12월에 오시려거든
짧은 해 아쉬움으로
서쪽 하늘이 피 토하는 늦음보다
밤새워 떨고도 웃고선
들국화에게 털 미안한 아침에 오오.

이젠 진실을 볼 수 있는
헤아림도 있을 텐데
이젠 영혼을 이야기할
경험도 가졌으려니
오시면 소망하나 위하여 마당 앞에
불 환히 같이 피워봅시다.

뒷주머니 손을 넣어 작년에 구겨 넣은
넥살일랑 다시 펴지 말고
몇 년째 우려먹은 색바랜 약속 문치는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그저 빈 마음 하나
간절함 가지고 그리 오오.

그대 12월에 오시려거든
달력 끝에서 숨 바쁘게 팔랑이는
바람이 등 돌릴 때 말고
늦가을 햇살에 느긋하니
감하나 익어가는 지금 오오.

오광수/시인

1953년 충남 논산에서 출생. 1986년 동인지 '대중시'로 데뷔. 주요 저서로 시집 2000년 계간 대한문학세계 시 등단. 주요 저서로 에세이집 「가수 이야기」, 「남만광대 전성시대」, 시해설집 「시는 아름답다」, 시집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는 건 미친 짓이야」 등이 있다.

“음식물 쓰레기 걱정 싹~” 음식물 바이오 소멸기 및 살균수 생성기



업소용 음식물소멸기 가정용 음식물소멸기 살균수 생성기 싹수

- 캐나다 밴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 인증기업” 선정
- 이노비즈 기업 선정, 정부 광고지원 대상 업체 선정

(주) 조은생활 문의 : 김순복(010-3182-3445)

제24장 애욕품(愛欲品)

탐욕이 모든 것을 망친다.

▶ 마음을 함부로 음행에 놓아두면

心放在游行 欲愛增枝條 分布生熾盛 超躍貪食候
심방재유행 욕애증지조 분포생치성 초약탐과후

마음을 함부로 음행에 놓아두면
애욕의 가지 어지러이 자라나
사방으로 퍼져 왕성해지는 것
과실 탐해 날뛰는 원숭이 같네

▶ 애욕을 참지 못하고

以爲愛忍苦 貪欲著世間 憂患日夜長 延如蔓草生
이위애인고 탐욕저세간 우환일야장 연여만초생

애욕을 참지 못하고
세상일을 탐내어 집착하면
근심 걱정 밤낮 자라 더욱 무성해
마치 넝쿨풀이 넝쿨을 내는 것 같네

▶ 사람들은 은혜와 사랑에 빠져

人爲恩愛感 不能捨情欲 如是憂愛多 潺潺盈干池
인위은애감 불능사정욕 여시우애다 잔잔영간지

사람들은 은혜와 사랑에 빠져
능히 정욕을 버리지 못하니
그리하여 근심과 애정은 늘어나
온몸에 가득히 흘러 넘치네

탐진치(貪瞋癡)를 버리면 곳곳이 극락

- 경자년 삼동산림 새벽예불(화엄법회) -



11월 25일, 전날 삼동산림 의식을 치룬 후 처음 맞는 새벽 예불이다. 이른 새벽 4시, 목탁 소리가 산 아래 중생의 하루를 깨운다. 산사의 하루 중 가장 먼저 행하는 도량석(道場釋)*, 삼라만상을 일깨우고 중생의 눈감음을 일깨워 지혜와 법을 전하는 의식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세속의 욕심은 끝없이 솟아나고, 그 욕심은 자신도 모르게 온 몸을 휩싸인다. 그럴수록 삶은 힘들어지고 탐진치(貪瞋癡)**가 계속 커지는 오염된 세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 오염된 세계는 사물(중성, 대중, 흥고, 운관) 소리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온 사찰에 울려 퍼지는 목탁소리 등 사물소리는 태고의 천지가 개벽하듯 고요함을 뚫고 자연 만물의 조화로운 기운들을 모으듯 깨달음의 소리로 다가온다.

아직 어둡고 어두운 신새벽, 스님들의 발걸음이 법당을 향한다. 타종과 흥고는 마치 천지 만물이 깨어나 겨울의 적막함, 혹은 번뇌와 망상의 속세로부터 깨달음의 경지로 한달음에 뛰어 오르게 할 듯하다.

이윽고 설법전에서 진행된 화엄법회(華嚴法會), 이른 새벽을 가르고 법당을 찾는 신도들과 봉원사 모든 스님들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으로 숙연해진다. 그리고 아직도 사바세계를 헤매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치기 위해 명상처럼 마음을 내려 놓는다. 이제 춥고 긴 산사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삼동산림 법회의 낭랑한 독경과 목탁 소리에 속세의 깊은 번뇌가 사라지고 있었다.

*도량석(道場釋) :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수행에 정진하기 위하여 새벽이나 아침에 부처님 앞에 예불하는 일, 또는 의식.

**탐진치(貪瞋癡) : 탐욕(貪慾)과 진에(瞋恚)와 우치(愚癡), 곧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 이 세가지 번뇌는 열반에 이르는 데 장애가 되므로 삼독(三毒)이라 함.

숲속 한방랜드(주) 시 숲가마 사우나

도심에서 즐기는 숲가마 찜질 여행
당신의 생활 속 편안한 휴식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봉원동 51
(시내버스 7024번 종점)
전화 : 02)365-2700~1

조상의 풍류와 낭만을 따라서... 정자(亭子) 기행 68



송강정(松江亭) 전라남도 기념물 제1호 / 전라남도 담양군

송강정(松江亭)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이 태어난 담양 송강정



송강정은 조선 선조 17년(1584) 대사헌으로 있던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동인과 서인의 싸움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후 창평에 내려와 살면서 세운 정자이다. 송강정이란 명칭은 정철의 호인 송강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디 후손들이 죽록정(竹綠亭)을 증건하면서 송강정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건물의 전면에는 송강정이라는 현판이, 측면에 바로

죽록정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정철은 조선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로, 그가 이 정자에 머물면서 지었다는 가사(歌辭 : 조선 초기의 시가와 산문의 중간 형태의 문학) ‘사미인곡(思美人曲)’은, 조정에서 물러나 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여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기탁하여 표현한 연금지정(戀君之精)을 읊은 노래이다. 효종 때의 학자 홍만종은 《순오지》에서 ‘사미인곡’을 가히 재갈공명의 출사표에 비길 만하다고 했을 만큼 뛰어난 작품이다.

정자의 주변은 소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있으며, 정자 앞으로는 영산강이 흐른다. 송강이라는 그의 호에 걸맞는 풍경을 띠고 있다. 숲 사이의 돌로 조성된 계단을 오르다 보면 아담하게 자리 잡은 정자를 마주하게 된다.

동남향으로 자리를 튼 송강정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건물로, 지붕은 옆에서 보면 여덟

팔(八)자 모양의 팔작지붕으로 지어졌다. 건물 가운데에 중재실(中齋室)이 있고 그 앞과 양 옆은 마루로 되어 있는 구조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팔작지붕의 휘어진 곡선과 곧게 뻗은 기둥, 그리고 정자 중앙에 자리 잡은 중재실이 서로 조화를 이룬 안정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다. 송강의 가사 중 ‘사미인곡’과 더불어 유명한 ‘속미인곡(續美人曲)’을 지은 곳이 바로 이곳이며, 정자 옆으로는 1969년에 세워진 사미인곡 시비가 있다.

글/사진 선암 석인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봉원사 주차장 이용안내 ☺

봉원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봉원사를 방문하시는 신도분들께서는 종무소나 각 화주 스님께 문의하시어 주차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이 없는 경우에는 요금(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이 발생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일반요금 : 기본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 무료주차 : 주차증 제시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계획도



◆ 모연부재목(시주내용) ◆

단위:만원

부재명	모연금	부재명	모연금
추녀	500	서까래	20
사래	200	개판	20
도리	100	부연	10
장여	50	기와(대와)	2



◆ 시주문의 ◆

종무소 : 02-392-3007~3008

삼천불전(三千佛殿) 보수·정비 불사

부처님 말씀에 ‘불사(佛事)는 복전(福田)이라’, 모든 중생에게 복에 종자를 심는 큰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천년고찰 봉원사에서는 삼천불전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불사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장애를 모두 극복하여 보수·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불교 전통문화 보전과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큰 공덕을 짓는 의미있는 불사에 많은 신도님들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자원봉사단 단원모집 안내 ☘

귀의 삼보하옵고,

봉원사 도량내 기와불사와 시주접수처 업무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봉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부대, 소년원 등 사회 각지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파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실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보수불사 시주자 명단(무순)

이정호 이창현 김승철 조성환 박소영
합창단 일동 합창단 연화모임

시주해 주신 신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